

광주·전남 장애인 태극전사, 올림픽 감동 잇는다

2024 파리 패럴림픽 28일 개막

8개 종목에 선수 17명 도전장
탁구·양궁·사격 등 메달 기대



2024 파리 올림픽이 지난 12일(한국 시간)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환희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개 종목에 17명의 선수가 참가해 메달 사냥을 노린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동현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장, 양오열 파리 패럴림픽 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 오는 28일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대회 17개 종목에 83명의 선수를 파견해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 순위 2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개 종목에 17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냈다.

광주에서는 보치아와 사격, 양궁, 육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상, 조정, 탁구 등 6개 종목에 11명의 선수가 나선다. 감독 1명과 코치 2명, 보조 선수 1명, 로터 1명 등도 함께 파리로 향해 힘을 보탠다.

메달 사냥이 유력한 종목은 탁구다.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아시안 패러게임)에서 무타기 메달 사냥에 성공했던 서수연과 박진철, 김영건, 김정길,

김성욱(이상 광주시청)이 이번에는 세계 무대에 도전한다. 조재관 감독과 박호근 수석 코치(이상 광주시청)도 다시 힘을 합친다.

패럴림픽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인 보치아에서도 메달 소식이 기대된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강선희(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한전KPS)가

보조 선수 박세열과 호흡을 맞춘다.

양궁에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한 김육금(광주시청)이 도전장을 냈고, 조정에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인 김세정(광주시장애인조정연맹·롯데캐미칼)이 출전한다.

또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강선

희와 김세정, 정지송(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삼호개발) 등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선수 채용 연계와 안정적인 훈련 여건 제공 등을 통한 지역 최초의 패럴림픽 국가대표를 배출해 의미를 더했다.

전남에서는 배드민턴과 사격, 양궁, 펜싱 등 4개 종목에 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지도자로는 탁구의 김현준 코치(전남도장애인탁구협회)가 파리에 동행해 함께 메달 레이스에 열중할 예정이다.

사격에서는 이윤리(완도군청)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이윤리는 2008 베이징 패럴림픽 금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동메달 이후 다시 8년 만에 시상대에 오르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배드민턴에서도 메달 전망이 밝다.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인 유수영과 동메달리스트인 정겨울(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메달 사냥을 노린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패럴림픽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파리에 사전 캠프를 마련했다.

9개 종목으로 꾸러진 선발대가 14일 먼저 파리로 출발하며 본진은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영식을 가진 뒤 출국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파리 금’ 안세영, 일본오픈·코리아오픈 불참

무릎·발목 부상… 4주 휴식 필요

‘서툼족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사진)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안세영이 이번 달 예정된 국제 대회에 모두 불참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이 지난 12일 소속 팀인 삼성생명을 통해 이번 달 출전 예정이었던 국제 대회에 대한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세영은 불참 의사와 함께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목 부상으로 약 4주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안세영은 오는 20~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2024 일본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Super 750)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Super 500)에 나서지 않는다.

지난해 일본오픈과 코리아오픈을 연속으로 제패한 안세영은 올해 디펜딩 챔피언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대회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입은 무릎 부상과 2024 파리 올림픽 직전 입은 발목 힘줄 부상으로 불참을



선언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안세영이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파리 올림픽 직후 불거진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세영은 이번 올림픽을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결승까지 마쳤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안세영은 금메달을 차지한 직후 선수단 보호와 관리 등과 관련 인터뷰를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잇따라 직격했고,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된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선수 중 유일하게 일본오픈과 코리아오픈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안세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생각과 입장을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받은 후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으나 아직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규빈 기자

광주여대 총장기 한국대학양궁선수권 19일 개막

국내 대학양궁 최강을 가리는 ‘광주여자대학교 총장기 제27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차세대 한국 양궁을 짊어질 전국 25개 대학교 2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서 남녀 개인, 단체전과 시·도별 남녀선수 1

명씩이 출전하는 혼성단체전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놓고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펼친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대학생 선수들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학교 간 친선도모와 선수들의 화합의 장으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최동한 기자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부 선수들이 13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끝난 2024 한국 중·고 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여중부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피아여중 제공

광주 수피아여중, 2024 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3연패

3년 연속 4개 전국대회 제패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가 2024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했다. 수피아여중은 이번 우승으로 이 대회 3연패를 달성했고 올시즌 치른 4개의 전국대회를 휩쓸었다.

수피아여중은 13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결승에서 봉의중을 89-51 꺾고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수피아여중은 이번 대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전승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이 대회 3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또 3년 연속 4개의 전국 대회를 제패했다. 수피아여중은 2022년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제77회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2023년 제60회 춘계 중고농구연맹전·연맹회장기·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주말리그

왕중왕전 등에서 정상에 올랐다.

올시즌에도 3월 제61회 춘계 중고농구연맹전과 5월 연맹회장기, 5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이어 이번 주말리그 왕중왕전까지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 농구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수피아여중은 이번 대회 A조 예선에서 청솔중(86-39 승)과 연암중(77-41 승)을 연파, 2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8강에 진출했다.

온양여중과의 8강에서 94-44로 이긴 수피아여중은 준결승에서 수원제일중을 75-61로 격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수피아여중은 결승에서 강하고 조직적인 압박 수비를 앞세운 속공 플레이로 1쿼터부터 주도권을 잡은 뒤 경기 끝까지 봉의중을 압도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끈 수피아여중 김담희는 대회 최우수선수상(MVP)과 함께 리바운드상, 어시스트상, 수비상까지 수상, 개인상 4관왕을 차지했다. 김담희는 이번 대회 5경기에서 93득점(경기

당 평균 18.6점), 86리바운드(평균 17.2개), 30어시스트(평균 6개), 26스틸(평균 5.2개), 15블록슛(평균 3개)으로 공수에서 펄펄 날았다.

수피아여중 윤새나 감독과 이선영 코치는 각각 지도상을 받았다.

이선영 수피아여중 농구 코치는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아 조직적인 수비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경기 때 연습한대로 잘 이행해줘 우승할 수 있었다”며 “올시즌 마지막 출전 대회에서 우승해 3년 연속 4개 대회 모두 전승 우승하는 위업을 달성해 기쁘고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 수피아여고는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동주여고와의 2024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여고부 준결승에서 81-63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수피아여고는 1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숙명여고와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최동한 기자